

# 진도군, 중대시민재해 예방 교육 실시

### 요양시설·어린이집 관계자 등 다중이용시설 대상 진행 “주민들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진도군 만들 수 있을 것”

진도군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시행에 따라 최근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주민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재해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군청과 요양시설, 어린이집, 건축물, 교량, 하수처리장 등 주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배경, 적용 범위,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관련 법령 해석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진도군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은 요양시

설(1개), 어린이집(4개), 건축물(15개), 교량(4개), 하수처리장(3개) 등 총 27개소이다. 진도군 안전생활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갖고 위험에 대한 작은 이상 징후도 놓치지 않고 사고 예방에 힘쓴다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진도군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는 노동자가 업무로 인해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관리상 결함으로 지역민들에게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진도=조성용기자

# 완도군,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개최

### 5월 8일까지 비대면 행사 위주

완도군은 4월 9일부터 5월 8일까지 청산도 화랑포길 일원에서 ‘청산도의 봄, 회복의 시작’을 주제로 ‘2022 청산도 슬로걷기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일상의 회복, 섬의 회복, 가치의 회복, 관계의 회복을 테마로 장기간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심신을 회복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진행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청산도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위주로 진행하며, 오프라인 프로그램(야외 진행)은 소규모 사전 예약 및 시간차를 두고 안전하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행사로는 섬 환경을 보호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는 취지의 ‘Low 플라스틱 캠페인’을 진행하며, 청산도에 방문해 일회용 플라스틱 물병을 반납하면 종이팩과 식물성 뚜껑으로 제작된 물을 제공한다. 축제 프로그램으로는 청산도 슬로길 11코스를 안보하는 온라인 스탬프 투어와 전국에서 참여 가능한 온라인 걸음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 온라인 스탬프 투어와 걸음 기부 캠페인은 애플리케이션 ‘워크 온’에서 참여 가능하다. 이 밖에도 청산도 주민이 축제를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청산도 축제 학교를 운영해 ‘슬로길 다시 가꾸기’, ‘별 볼일 있는 청산도’, ‘청

산도 슬로 피크닉’ 등을 운영하고, 관람형 프로그램인 ‘청산도 예술 놀이터’를 운영해 청산도 봄 콘서트와 청산도 예술 작품 전시를 진행한다. 청산도를 방문하지 않아도 전국 어디서나 청산도 봄을 즐길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도 운영한다. 유튜브 채널 ‘청산도에 와보라’는 주민들이 축제 및 청산도 홍보를 위해 직접 기획하고 출연한 영상이 축제 기간에 지속적으로 업로드 예정이다. 또 전문 유튜버를 섭외하여 청산도를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 청산도를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송출한다. ‘2022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일정 및 프로그램 정보는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https://csdswf2022.oopy.io/>)

한편 청산도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푸른 바다, 산, 구들장논, 돌담, 해녀 등 느낌의 풍경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곳으로 2007년 12월 1일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선정되며 세계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 절로 발걸음이 느려진다 하여 붙여진 ‘슬로길’은 전체 11코스, 42.195km에 이르며,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이야기가 있는 생태 탐방로’ 선정, 2011년 국제슬로시티연맹 공식 인증 ‘세계 슬로길 1호’로 지정됐다. 기동취재본부

# 강진군, 민원실 내 인공지능 통·번역기 비치 운영

###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위한 민원 서비스 확대



강진군이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의 민원 편의의 서비스 확대를 위해 ‘인공지능 통번역기’를 비치하고 운영한다. 인공지능 통번역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65개의 다국적 언어를 음성 인식한 후 원하는 언어로 번역해 주는 기기이다. 이를 통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 직원간의 언어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원활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군은 매년 관내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등 민원 수요자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들을 민원 통역관으로 지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 이는 통역 가능 언어가 4개국으로 제한적이었으나, 인공지능 통번역기 활용을 통해 다양한 외국어를 번역할 수 있게 됐다. 김동남 민원봉사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 수요자를 위한 편리한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강진=김영일기자



# 해남군 “어르신 말동무 AI로봇 ‘다솜이’가 할게요”

###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AI로봇 배부

해남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인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사업은 만성질환자 등 건강관리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스마트기기를 제공해 보건소 전문인력이 대면·비대면으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기기는 손목시계형 활동량계, 블루투

스 혈압·혈당·체중계 및 AI로봇 등으로, 기기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스마트폰 앱과 연동되어 보건소 전문 인력과 공유된다. 이를 통해 비대면 건강 상담과 건강생활실천 과제부여 등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군은 사업 참여중자 300명 중 허약 및 독거 어르신 등 120명을 대상으로 AI로봇 ‘다솜이’를 4월 말 배부할 예정이다. 기동취재본부

AI로봇은 말벗기능을 비롯해 복약 등 각종 알림기능, 음악제공, 치매예방, 위험감지 기능 등을 가지고 있어,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관리와 함께 우울감 해소 등 정서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군 관계자는 “AI·IOT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건강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건강한 노년의 삶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장흥군 안양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장흥군 안양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공동위원장 윤양현, 김영중) 지난 6일 지역민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기 위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안양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2021년 사업추진결과, 2022년 특화사업 추진계획 및 기부릴레이 방안 등의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2022년 특화사업으로 희망체육 냉

장고, 장수어르신 생신챙겨드리기, 거동불편 저소득층 생활환경 개선사업,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등 6건의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김영중(안양농협 조합장) 위원장은 “기부자가 직접 혜택을 받을 대상자를 지정 할 수 있는 지정기탁 기부방식 홍보를 통해 기부에 대한 인식 변화와 기부문화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